

MWC26

“‘익시오’ 보이스 AI 차별화 글로벌 SW기업으로 전환”

홍범식 LG U+ 사장, 통신·AX 주도 비전
감정·맥락 파악 ‘익시오 프로’ 고도화
B2B 영역 ‘엔터프라이즈 AI 풀스택’ 구축



홍 사장은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통신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는 음성”이라며 만약 이 데이터를 직접 SW화하지 않고 빅테크에 넘긴다면 과거처럼 시장을 잠식당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B2B 영역에서는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엔터프라이즈 AI 풀스택’을 구축한다. 2027년 준공 예정인 파주 AIDC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DBO) 사업을 확대하고, LG AI연구원의 ‘엑스원’ 기반 통신 특화 AI와 보안을 강화한 ‘소버린 AI’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해의 진출은 이미 가시권에 들어왔다. 홍 사장은 “올해 안으로 1~2개 글로벌 사업자에게 익시오를 판매하겠다”며 현재 8개 글로벌 통신사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사장은 “AI 시대는 통신사에 새로운 해외 진출 판로를 열어준 셈”이라며 “천문학적 투자가 요구되더라도 차별화된 수익창출원을 만들기 위해 AI 인프라와 SW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AI 경쟁 핵심 축 ‘인프라’ “SK그룹 AIDC 가장 최적화”

정석근 SKT CTO, AI 일상 침투로
인프라 부담 커져… ‘효율·비용’ 중요
‘네오클라우드’ 컴퓨팅 자원 직접 제공



의 변화가 최근 3년에 압축되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점에서 SKT는 SK그룹의 수직 계열화된 역량을 최대 무기로 내세운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부터 SK에코플랜트의 에너지 설비, SK브로드밴드의 인프라 운영까지 묶어 최적화된 AI 데이터센터(AIDC)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CTO는 “SK그룹 자체가 AIDC를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구조를 가졌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SK텔레콤(SKT)이 인공지능(AI) 경쟁의 핵심 축을 거대언어모델(LLM) 소프트웨어에서 ‘인프라’로 완전히 옮겨 잡았다.

정석근 SKT 최고기술책임자(CTO·사진)는 지난 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26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LLM 성능 경쟁만으로는 더 이상 차별화를 만들기 어렵다는 냉정한 진단을 내렸다. 이제는 하드웨어와 데이터센터(DC)의 근본적인 변화를 묶어 대응하는 인프라 싸움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정 CTO가 인프라를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효율과 비용 때문이다. 최근 코딩 에이전트처럼 AI 활용이 실무 깊숙이 들어오면서 내부 처리 과정과 인프라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지난 2~3년간은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버텼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정 CTO는 “엔비디아에 대응하는 칩들이 본격 상용화되고 있으며, 이를 담는 그릇인 데이터센터도 공랭식에서 수랭식으로 전환되는 등 지난 20년

데이터센터 사업 모델 역시 단순한 ‘부동산 임대’를 넘어 컴퓨팅 자원을 직접 제공하는 ‘네오클라우드’로 진화하고 있다. 다만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SKT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임대와 GPU 클라우드 서비스(GPUaaS)를 적절히 섞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그는 “10MW 규모의 AIDC를 짓는다고 하면 건물 짓고 전기 설비를 넣는데 대략 1500억~2000억원 정도가 투입된다”며 “여기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B200 GPU를 사서 넣으면 그게 대략 8000억원 가량 정도다. 컴퓨팅까지 다 넣으면 대략 1조원 정도 드는 것이고 그 중에 20% 정도가 건물값, 80%가 서버값이 된다”고 했다. /김서현 기자

KT, AI 네트워크 협력체 ‘AINA’ 첫 대표 의장사

13개 의장사, 20여개 기업·기관 참여

KT가 한국형 AI 네트워크 협력체 ‘AINA(AI 네트워크 얼라이언스)’의 첫 대표 의장사로 활동한다고 5일 밝혔다. AINA는 AI 네트워크 구축과 산업 생태계 육성을 목표로 국내 산·학·연 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력체다.

출범식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전시회 ‘MWC26’ 기간 중 KT 전시관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우혁 정보호네트워크 정책실장과 KT 네트워크부문장 서창석 부사장, 최진성 AI-RAN 얼라이언스

의장 등이 참석해 협력체 출범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KT는 AI 네트워크 기술 개발과 글로벌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AINA의 첫 대표 의장사로 맡게 됐다. 협력체는 국내 통신 3사를 포함한 13개 의장사와 2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AI 네트워크 관련 산업 협력을 추진한다.

AINA는 향후 공동 연구 과제 발굴과 협력 논의 체계 구축, 글로벌 기관과의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네트워크 기술과 표준 논의를 글로벌 협력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KT, 2030년까지 스타트업 500곳 육성

AI·ESG 분야 스타트업 15곳 전시관 운영
정재현 SKT CEO, 스타트업 대표 만나 논의

정재현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3일(현지시간) 전시회에 참여한 스타트업 대표들과 런치 미팅을 갖고 기술과 사업 모델을 살펴보고 글로벌 진출과 대기업 협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SK텔레콤은 MWC26 부대행사인 ‘4YFN(4 Years From Now)’에 ‘SKT 스타트업 전시관’을 마련하고 AI와 ESG 분야 스타트업 15곳의 전시를 지원하고 있다.

정 CEO는 정부의 ‘창업·벤처 정책 비전’과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등을 언급하며 “SKT도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적극 화답하는 차원에서 스타트업의 ‘AI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CEO는 “SKT는 오는 2030년까지 총 5년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스타트업 500곳의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올해 협업 플랫폼 ‘스케치(SKETCH)’을 비롯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스케치 포 굿’과 ‘스케치 위드 AI’ 등을 통해 약 80개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LG CNS, GPU 576장 수용 ‘AI 박스’ 공개

컨테이너 기반 소형 데이터센터

LG CNS가 컨테이너 기반의 소형 데이터센터 ‘AI 박스’를 공개하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AI 박스는 컨테이너 하나에 최대 576장의 GPU를 수용할 수 있는 패키지형 데이터센터다. 별도의 건물 건설 없이 구축할 수 있어 설치 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전통적인 데이터센터 구축에 약 2년이 소요되는 데 비해 AI 박스는 약 6개월 내 구축이 가능하다.

모듈형 구조를 적용해 확장성도 높였다. 단일 컨테이너 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결합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로 확장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업은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에 따라 인프라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AI 박스에는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가 통합 구성돼 있다. AI 플랫폼과 전력·냉각 설비, IT 장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한 것이



LG CNS AI 박스 투시도. /LG CNS

특징이다. LG전자의 냉각수 분배 장치(CDU)와 향온합습기, 냉동기, LG에너지솔루션의 UPS용 배터리 등 전력·냉각 장비가 함께 적용됐다.

시설은 전력 인프라를 담당하는 전기실과 서버·GPU가 운영되는 전산실로 구성된다. 외부에는 발전기와 배터리를 설치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열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AI 박스 1개 기준 서버 전력 규모는 약 1.2MW다.

컨테이너형 데이터센터는 생생형 AI 확산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서현 기자

LG U+, GLOMO서 ‘CTO 초이스’ 등 3개부문 수상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

AI 기반 보안 기술 역량 입증

LG유플러스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G SMA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GLOMO) 2026’에서 ‘CTO 초이스’를 포함해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GLOMO 어워드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주관하는 행사로 이동통신 업계의 주요 기술과 서비스를 평가하는 시상식이다.

LG유플러스는 ‘모바일 기술’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에 수여되는 ‘CTO 초이스’를 수상했다. 해당 상은 전 세계 통신사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선정한다.

이번 수상에는 AI 기반 보안 기술이 주요하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AI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에 온디바이스 기반 음성 변조 탐지 기능인 ‘안티딥보이스’를 적용해 변조된 음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기술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양자내성암호 기술 등을 통해 보안 기능을



이상엽 LG유플러스 CTO(오른쪽)이 손 콜린스 GLOMO 심사위원장으로부터 CTO 초이스를 수상하는 모습. /LG유플러스

강화했다.

또한 AI 보안 기술을 통합한 ‘익시 가디언’은 ‘최고의 네트워크 보안 및 사기 방지’ 부문을 수상했다. 해당 상은 네트워크 보안과 사기 대응 기술을 평가해 수여된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마케팅 액셀러’ 부문에서 ‘마케팅 포 굿’ 상도 받았다. 이 부문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된 마케팅 활동을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 /김서현 기자